

33

현대산문

염상섭

만세전

한/줄/평

3·1 운동 이전, 한 지식인 청년의 눈에 비친 식민지 조선 사회의 모습은 구더기가 끓는 묘지와도 같았다.

작품 간추려 읽기

조선에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전 해의 겨울, 동경에서 유학 중이던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하기로 해. 아내가 죽어 간다는 소식에도 '나'는 그다지 충격을 받지 않았고, 기타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서 단골 술집에서 놀까지 마시지. 기타를 타고 시모노네키에서 내린 '나'는 조선으로 가는 연락선을 타려고 하는데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귀찮게 구는 형사들에게 시달리면서, 자신이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유별나게 느끼게 돼. (**연** 결정적 장면 ①) 그리고 귀국하는 배 안에서 조선인들을 경멸하는 일본인들의 말을 듣고 열사의 눈 토리를 받게 되지. '나'는 이러한 상황에 분개하고 동시에 조선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게 돼.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한 '나'는 기타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데, 김천에서 만났던 형과 기타 안의 젊은 당꾼이 통독부 법에 의해 무덤으로 공동묘지밖에 쓸 수 없게 된 일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을 보. '나'는 산 사람의 날 궁리가 아닌 죽은 뒤의 문힐 공간에 대해 염려하는 이들의 모습이 답답하고 한심하다고 생각하. 서울로 향하는 중 헌병들은 기타 안을 수색해, 포악한 무단 정칙과 가혹한 수탈 속에서 힘 없는 조선 민중들은 '나'의 눈에 구태의연하고 무기력해 보이기만 해. 그리고 '나'는 그러한 조선 사회가 '구더기가 끓는 무덤'과 같다고 탄식하. (**연** 결정적 장면 ②) 서울에 도착한 후 곧 장 집으로 간 '나'는 죽어가는 아내를 보고도 가엾은 생각이 나지 않아. 아내의 병세에 대해 들은 나는 양의를 쓰는 게 좋지 않냐고 하지만, 아버지는 펄쩍 뛰. (**연** 결정적 장면 ③) 하는 수 없이 '나'는 놀이나 마시며 아내의 죽음을 기다리고, 며칠 후 아내가 죽자 '나'는 급하게 장례를 치른 후 현실에서 도망치듯 동경으로 돌아가.

결정적 장면

① 배가 출발하기 전, '나'는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들에게 시달림

어디를 가나, 그 머릿살 아픈 형사씨의 승강이를 받기가 싫어서 배로 바로 들어가고 싶었으나, 배에는 아직 들이지 않기에, 나는 하는 수 없이 대합실로 들어갔다. 뽀뽀*나 살까 하고 매점 앞에 가서 섰으려니까 어느 틈에 벌써 알아차렸는지 인버네스를 입은 낫 서툰 친구가 와서 모자를 벗으며 끄덕 하고 국적이 어디냐고 묻는다. 나는 암말 아니 하고 한참 쳐다보다가, 명함을 꺼내서 주고 훌쩍 가게로 돌아서 버렸다.

“본적은?”

내 명함을 받아 들고 내가 흥정을 다 하기까지 기다리고 있던 인버네스는 또 괴롭게 군다. 나는 그래도 역시 잠자코 그 명함을 도로 빼앗아서 주소를 써서 주고는, 사놓았던 물건을 들고 짐 놓는 자리로 와서 앉았다. 그러나 쫓자는 또 쫓아와서,

“나이는? 학교는? 무슨 일로? 어디까지…….”

하며 짓궂이 승강이를 부린다. 배를 기다리고 있던 '나'에게 다가온 낯선 이는 '나'에게 이견저견을 물으며 귀찮게 해. '나'가 수상한 행동을 했던 건 아니고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나는 실없이 화가 나서 그까짓 건 물어 무엇에 쓰려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으나 꼭 참고 간간단단히 응대를 하여 주고 부리나케 짐을 들고 대합실 밖으로 나와 버렸다.

“미안합니다그려.”

하며 좀 비웃는 듯이 인사를 하는 꺾자의 흘겨뜨는 눈은 부리부리하고 험상궂었으나, 내 뱃속에서도 제게 지지 않게 바지랑대 같은 것이 치밀어오르는 것을 참는 판이었다. '나는 화가 났지만 탐을 수밖에 없었어.'

승객들은 북적거리며 배에 걸쳐 놓은 층층다리 앞에 일렬로 늘어섰다. 나도 틈을 비집고 그 속에 끼었다.

(중략)

선실 안의 수백의 눈은 모두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리었다. 나는 얼굴이 화끈화끈하여 더 섰을 수가 없었다.

"내가 도적질이나 한 혐의가 있단 말시오?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하라는 데야 또 어찌란 말시오. 정 그럴 테면 이리로 들어와서 조사를 하라고 하구려. 배는 떠나게 되었는데 나가자는 사람도 엄치가 있지."

나는 분이 치밀어 올라와서 이렇게 볼멘 소리를 질렀다. 배가 떠나기 전 배 안까지 형사가 '나'를 찾아온 거야. '나'에게 도나에 응해 달라고 하며 같이 밖으로 나가자는 거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배로 꼭 떠나시게 할 테니, 제발 잠깐만 나가 주세요. 자꾸 시간만 갑니다. 여기서 창피하실까 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창피하다? 흥, 창피? 얼마나 창피하면 예서 더 창피할꾸. 그런 사패 볼 것 없이 마음대로 하슈!"

환갑에 이렇게 소리는 질렸으나, 그 애걸하는 양이 밍살스런 중에도 가없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요, 어느 때까지 승강 이만 하다가는 꺾자 말마따나 이로울 것도 없고 시간만 바라바라 가졌기에 나가기로 결심하고 웃저고리를 집어 입고서, 어떻게 될지 사람의 일을 몰라서 아까 사가지고 들어온 벤포 그릇까지 가지고, 가방을 들고 앞서 나가는 형사의 뒤를 따라 섰다. 형사가 큰 성공이나 한 듯이 득의만면하여,

"진작 그러시지요. 별일은 없을 거예요."

하며 웃는 그 얼굴에는 달래는 듯하기도 하고 빈정대는 듯한 빛이 보였다. 나는 무심중에 주먹이 부르르 떨리는 것을 깨달았다.

갑판으로 나와서 승강구까지 불려다가 조사를 하게 하라 하여 보았으나, 그것도 들어주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것을 참고 결국 잔교(棧橋)로 내려섰다.

대합실 앞까지 오니까, 아까 내 명함을 빼앗아 간 인버네스가 양복에 외투를 입은 또 한 사람과 무시무시하게 경계를 하고 섰다가, 우리를 보더니 아무 말 아니 하고 기선 화물을 집터미같이 쌓아 놓은 뒤로 앞서 들어갔다. 아까 명함을 받아간 사람도 형사였나봐. 가방을 가진 자도 아무 말 아니 하고 따라 섰다. 나는 가슴이 선평하는 것을 참고, 아무 반항할 힘도 없이, 관에 들어가는 소처럼 뒤를 대어 섰다. 네 사람이 예정한 행동을 취하는 것처럼, 묵묵하고 침중한 가운데에 모든 행동을 경쾌하게 하는 것이, 마치 활동사진에서 보는 강도단이나 그것을 추격하는 탐정 같았다. 네 사람은 화물에 가리어 행인에게 보이지 않을 만한 곳에 와서 우뚝우뚝 섰다. 대합실의 유리창에서 흘러나오는 전광만은, 양복쟁이의 안경테에 소리 없이 반짝 비치었다.

"오늘 하루 예서 목지 못하겠소."

양복쟁이가 우선 입을 벌리며 가방을 빼앗아 든다. 좁은 골짜기에서 나직하게 내는 거세고도 굵은 목소리는 이 세상에서 들어 본 목소리 같지 않았다. 나는 얼빠진 놈 모양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안경알이 하얗게 어롱어롱하는 그자의 두툼하고 둥근 상을 쳐다보며 섰었다. 그자도 나의 표정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입술을 악물고 위협하는 태도로 노력하다가 별안간에 은근한 어조로,

"하루 쉬어서 가시구려." 배는 오늘 출발하는데, 하루를 묵으라는 말은 배를 타지 말라는 거지. 형사들은 명확한 이유를 대지도 않고 무작정 '나'를 잡아두려 해.

하는 양이, 마치 정다운 진객을 만류하는 것 같았다. 무슨 죄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이같이 으스스한 골짜기에서 올려 보았다 달래 보았다 하는 것을 당하는 것은 나의 수명이 줄어들어 가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죄가 없음에도 이런 일을 당하니 두렵고 긴장'

됐겠다. 만일 내가 부호로서 이런 꼴을 당하였다면, 위불위없이* 강도나 맞았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답을 하려 하였으나, 참 정말 귀가 멍멍이 막혀서 입을 벌릴 기운이 없었다.

“묵긴 어디서 묵으란 말이오? 유치장애나 가잔 말씀요? 이 배에 떠나게 한다는 약조를 하였기 때문에 나왔으니깐 약조대로 합시다.”

이렇게 강경히 주장은 하면서도, 마음은 차차 두근거리지고 신경은 극도로 긴장하여졌다. 대체 나 같은 위인은 경찰서의 신세를 지기에는 너무도 평범하지만, 그래도 이 배만 놓치면 참 정말 유치장에서 욕을 볼 것은 뻔한 일, 하늘이 두 쪽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배를 놓쳐서는 큰일이라고 결심을 단단히 하고서도 웬일인지 가슴은 여전히 두근두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일본인 형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나’를 유치장에 넣어버릴 수도, 배를 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 ‘나는 그것을 두려워 하는 거지.

*벤또: ‘도시락’을 뜻하는 일본어.

*위불위없이: 틀림이나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장면 선정 이유

‘나는’ 조선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다가 어떤 날선 이에게 불임검문을 받아. 날선 이는 ‘나’에게 본적, 나이, 학교와 조선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묻지. ‘나는’ 수상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독립 운동을 하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인데 마티 달문을 저지른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에 분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참고 대답해. 그럼에도 배가 출발하기 전 형사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지. ‘나는’ 아무런 죄가 없으니 당당한 태도를 보이려 하지만 배를 타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해.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도 일본인에게 멸시받고 억압받는 조선인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장면이지.

② ‘나’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암담한 현실을 마주함

아무도 막지 않고 좌우편으로 눈발이 쳐들어 오는 횡행그레한 속으로 한가운데에 난로랍시고 놓고 그 가에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여 섰다.

‘대합실도 없이 이런 별판에 세워 둘 지경이면 어서 잠깐으로 들여보낼 일이지!’ 눈이 내리는 한겨울에 대합실도 없는데 기차에 타려는 사람들을 무작정 세워 뒀나봐. ‘나는’ 속으로 답답하게 여기고 있어.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난로 옆을 훑듯 보려니까 결박을 지은 범인이 댓 사람이나 오르르 떨며 나무의자에 걸터앉고, 그 옆에는 순사가 셋이서 지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무심코 외면을 하였다. 그 중에는 머리를 파발을 하고 땃덩이가 된 치마저고리의 매무시까지 흘러내린 젊은 여편네도 역시 포승을 지어서 앉아 있다. 부끄럽지도 않은지 나를 부러워하는 듯한 눈으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인다. 자세히 보니 등뒤에는 싹싹 자는 아이가 매달렸다. 여자의 이런 꼴을 처음 보는 나는 가슴이 선뜩하며 떨거니 얼이 빠져 섰었다. ‘나는’ 포승들에 묶인 태 앉아 있는 조선인 여자의 물골을 보고 통격을 받아.

나는 흉악한 꿈을 꾸며 가위에 눌린 것 같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한참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렸다.

정거장 문 밖으로 나서서 눈을 바삭바삭 밟으며 큰길 거리로 나가니까 칠 년 전에 일본으로 달아날 제, 오정 때 대전에 내려서 점심을 사 먹던 그 집이 어디인지 방면도 알 수 없이 시가(市街)가 변하였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날 때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길 맞은편으로 쪽 늘어선 것은 빈지를 들었으나 모두가 신축한 일본 사람 상점이다. 우동을 파는 구루마가 짹짹 흐르는 요령 소리만이 괴괴한 거리에 처량하다. 열네다섯쯤에 말도 모르고 단신 일본으로 공부 간다는 데에 호기심이 있었던지 친절히 대접을 해 주던, 그때의 그 주막집 주인 내외가 그렇다.

다시 돌쳐 들어오며 보니, 찻간에서 무슨 대수색을 하는지 승객들은 아직도 아니 들여보내고, 결박을 지은 여자는 업은 아이가 깨어서 보채니까 일어서서 서성거린다.

‘젓이나 먹이라고 좀 풀어 줄 일이지.’

하는 생각을 하니 곁에 시퍼렇게 얼어서 앉은 순사가 불쌍하다가도 밉살맞다. 목책 안으로 들어오며 건너다보니까 차장실 속에 있던 두 청년과 현병도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

E1 나는 까닭 없이 치량한 생각이 가슴에 복받쳐 오르면서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공기에 몸이 떨린다.

젊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시든 배춧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멀거니 앉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듯한 천한 웃음이나 ‘헤에’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 가엾기도 하고, 분이 치밀어 올라와서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다. 식민지 조선인들의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모습에 ‘나는 치량한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분노를 느껴, 조선인들을 연민하면서도 동시에 비판하고 있는 거지.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뉘쳐 버려라!’

찻간 안으로 들어오며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

E1 E2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나는 이런 조선의 현실이 마지 구더기가 끓는 무덤과 같다고 느끼지. ‘나의 암울한 현실 인식이 드러나.

나는 모자를 벗어서 앉았던 자리 위에 던지고 난로 앞으로 가서 몸을 녹이며 섰었다. 난로는 꽤 달았다. 뱀의 혀 같은 빨간 불길에 난로 문 틈으로 날름날름 내다보인다. **E3** 찻간 안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석탄재의 먼지로 흐릿하면서도 쌀쌀하다. 우중충한 남뿔불은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으나 묵직하고도 고요한 압력으로 지그시 내리누르는 것 같다. 나는 한번 휘 둘러다보며,

E1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속에서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에 갈까 봐 애가 말라 하는 가특한 백성들이다!’

하고 혼자 코웃음을 쳤다.

E1 ‘공동묘지 속에서 사니까 죽어서나 시원스런 데 가서 파묻히겠다는 것인가? 그러나 하여간에 구더기가 득시글득시글하는 무덤 속이다. 모두가 구더기다. 너도 구더기, 나도 구더기다. 그 속에서도 진화론적 모든 조건은 한 초 동안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겠지! 생존경쟁이 있고 자연도태가 있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하고 으르렁댈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구더기의 날날이 해체가 되어서 원소가 되고 흙이 되어서 내 입으로 들어가고 네 코로 들어갔다, 네나 내나 거꾸러지면 미구에 또 구더기가 되어서 원소가 되거나 흙이 될 것이다. 에이! 뉘져라! 움도 짝도 없이 스러져 버려라! 망할 대로 망해 버려라! 사태가 나든지 망해 버리든지 양단간에 끝장이 나고 보면 그 중에서 혹은 조금이라도 쓸모 있는 나은 놈이 생길 지도 모를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마주한 ‘나의’ 자포적이고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어.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 EBS는 이렇게 물었다

E1 서술 방식: 한 인물의 내면을 지속적으로 서술하면서 그의 현실 인식을 강조함

E2 구절의 이해: 특정 단어를 반복하여 식민지 조선에 대한 ‘나의’ 현실 인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냄

E3 소재의 기능: ‘찻간 안’은 ‘나’가 시대적 분위기를 읽어내고 답답함을 느끼는 공간임

☞ 장면 선정 이유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한 ‘나’가 기타를 타고 서울로 향하던 중 일본 순사들이 기타를 세워 두고 찻간 안을 수색하고 있어.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 될 년만에 귀국한 ‘나’의 눈에 조선 사람들은 일본인 현병이나 순사들의 폭력적, 억압적인 통제에 무기력하게 수긍하고, 공포에 질린 채 비굴하게 아첨을 하며 낄길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나’는 식민지 조선의 절망적인 현실을 보고 ‘구더기가 끓는 무덤’과 같다고 느껴. 참고로 이 작품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는 「묘지」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는데, 이는 주인공 ‘나’의 눈에 비친 조선이 마지 무덤, 묘지와 같았기 때문에 붙여진 제목인 것으로 볼 수 있지. ‘나’가 조선의 암울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어떤 고뇌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 작품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하지.

③ 집에 도착한 '나'는 아픈 아내의 병세에 대해 들음

사랑에 나가서 깜짝 놀란 것은 김의관이 아버님 옆에 앉았는 것이다.

‘언제부터 또 와서 있누?’

하며 어제 차 속에서 보던 금테안경을 생각하고 들어가서 인사를 하니까,

“잘 있었나? 내환이 위중해서 얼마나 걱정이 되나?”

하며 한층 더 점잔을 빼고, 양복은 입었으나 장죽을 물고 앉았다. 아랫목에 도사리고 앉으셨던 아버님은,

“거기 앉어라.”

하며 그 동안 병세의 경과를 소상히 이야기하며 무슨 탕(湯)을 몇 첩이나 썼더니 어떻게 변하고, 무슨 음(飮)을 몇 첩을 써보니까 얼마나 효험이 있었고, 무엇이 어떻게 걸리어서 얼마나 더치었다는 이야기를 기다랗게 들려 주셨으나 나에게는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아내의 병세에 대해 아버지가 '나'에게 설명하지만 '나'는 잘 알아듣지 못해. 나는 가만히 듣고 앉았다.

“그 유종(乳腫)은 총독부 병원에 가서 얼른 파종을 시켰더면 좋았을걸요?” ‘나’는 총독부 병원, 즉 서양식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지.

하며 한마디 하니까,

“요새 양의가 무어 안다던? 형두 그 따위 소리를 하기에 죽여도 내 손으로 죽인다고 하였다만…….”

하며 역정을 내셨다. 하지만 아버지는 양의를 전혀 믿지 않아. 나는 잠자코 말았다.

안에 들어와서 급히 차려 주는 조반을 먹다가,

“김의관은 왜 또 와 있어요?”

하고 어머니께 물어 보았다.

“집을 뺏기구 첩허구 헤어진 뒤에 벌써부터 와 있단다.”

“그럼 큰집은 어떡하구요?”

“큰집은 있기가 있지만, 언제는 안 돌아다니나 보던, 터구나 셋방으로 돌아다니는 터에! 매일 술타령이요, 사람이 죽을 지경이다.”

하며 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셨다.

“그, 왜 붙어요?”

김의관에 대한 숭배심을 잃은 나는 그 반동으로 보기가 싫었다.

“왜 붙이는 게 뭐냐?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김의관만한 사람이 없다고, 누가 무어라고만 하면 야단이시구, 꼭 검상해서 잡숫다시피 하시는데.” ‘나’와 어머니는 김의관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을 뿐더러 당락티 않게 여기지만, 아버지는 그를 매우 가까이 하디.

김의관은 합방통에 무슨 대신(大臣)으로 합방에 매우 유공한 서자작(徐子爵)의 일긴(一緊)으로서 그 서씨의 집을 얻어 들었는데, 서씨가 올 여름에 죽은 뒤에는 집까지 뺏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으로 서자작이 하던 사업 — 이라야 별다른 게 아니라 귀족들의 초상집 호상 차지하는 것이지만, 이것만은 대를 물려받아서 한다는 소문이다.

“그건 고사하고, 여보, 김의관이 유치장에 들어갔다가 그저께야 나왔다우. 모닝코트를 입구, 하하하.”

시험이 며칠 아니 남았다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무엇인지를 꼼지락꼼지락하고 앉았던 누이동생이 돌러다보며 말참견을 한다.

“응? 허허, 그거 걸작이다! 현대 무슨 일루?”

나는 김의관이 예전에 두 번이나 붙들려 가는 것을 따라가 본 일이 있느니만큼 유치장이란 말에 커당게 웃었다.

“누가 아우. 밤중에 요릿집에서 부랑자 취체*에 붙들려 들어갔다가 이주일 만에 나왔다우, 하하하…….”

“허허허…….”

나는 합병통에 헌병사령부에 가던 일을 생각해 보고,

“이번에는 누가 쫓아갔던?”

하며 또 한번 웃었다.

“아, 참 너두 밤출입 하지 마라. 요새는 부랑자 취제도 꽤 심한 모양인데…….”

어머니는 곁에서 주의를 시킨다.

“왜 내가 부랑잔가요? 그런데 김의관이 유치장에서 나와서 무어라구 해?”

하며 누이더러 물어 보았다.

“아버지께서는 누가 먹어 내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하시지만, 큰집 오빠가 그러는데, 요릿집에서 취체를 당하니까, 물론 독립운동자를 잡으려는 것인데, 김의관이 호기 좋게 정무총감(政務總監)에게 전화를 걸 테라구 법석을 하기 때문에 형사들은 더 아니파서, 웬 되지 않은 놈이 이 기승이냐고 끓려 주었나 보다던데요.” 김의관은 방중에 요란답으로 눈탈을 나온 형사들에게 허세를 부리며 으름장을 놓았다가 되려 유치장으로 달려간 어리석고 실속 없는 인물이야.

“넌 뭘 안다구 어른들 이야기를 그렇게 하니!”

어머니는 누이를 잠깐 꾸짖고 나시더니, 아랫방에서 중기가 깨었다고 안고 나오는 것을 받아 가지고 들어오신다.

“자아, 너 아범 보라. 너 아범 왔다. 좀 보라! 왜 인제 오셨소?”

어머니는 겨우 핏덩어리를 면한 조그만 고깃덩어리를 열러 가며 나에게로 데미쳤다. 처네에 싸인 바짝 마른 아이는 추워서 그러는지 두 팔을 오그라뜨리고 바르르 떨면서, 핏기 없는 앙상한 얼굴을 이리로 향하고 말끄러미 나를 쳐다보다가 으아 하며 가냘픈 목소리로 운다.

“그, 왜, 그 모양이에요?”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는 간난아이인 ‘나’의 아들을 데려와 ‘나’에게 보여주지만 ‘나’는 그리 반가워하지 않아.

“왜 어떠냐? 모습이 너 닮아 이쁘지 않느냐? 인제 석 달쯤 된 게 그렇지. 그러나 나면서 어디 에미 젖이랴곤 변변히 먹어 봤니. 유모를 한 달쯤 뺐다가 나가 버린 뒤로는 똑 우유로만 길렀는데.”

울음을 시작한 어린아이는 좀처럼 그치지를 안고 점점 더 발악을 한다. 파랗게 질리어서 두 발을 뺨드렁거리고 배를 발딱 발딱 쳐들어 가며 방 안을 발작 뒤집어놓는다.

“에그, 이게 웬 야단이야?”

하며 누이는 보던 책을 덮어 놓고 눈살을 찌푸리며 마루로 뺨 나가 버렸다. 나도 상을 밀어 놓고 총총히 일어났다. 사랑으로 나가서 건넌방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며 누웠으려니까, 낮 서투른 청년이 하나 찾아왔다. 동경의 소할(所轄) 경찰서에서 지금 중로서로 인계를 하여 왔는데 다시 떠날 때까지 자기가 미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얼마 아니 계실 테지요? 늘 쫓아다니지는 않겠습니까. 가끔가끔 올 테니 그 대신에 문 밖이나 시골을 가시거든 요 앞 교 번소로 통기를 좀 해주슈.”

하며 매우 생색이나 내는 듯이 중언부언하고 가버렸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다. 집에 도착한 ‘나’를 찾아온 형사인 듯한 청년이 ‘나’를 미행하게 되었다고 말해. 아마도 배를 타기 전 ‘나’를 조사했던 형사들과 무관하지 않겠다. 조선인을 향한 일제의 억압과 통제가 공공연히 다행되었음을 보여 줬.

*취체: 규칙, 법령, 명령 따위를 지키도록 통제함.

장면 선정 이유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도착한 ‘나’는 아버지에게서 아내의 병세에 대해 듣게 돼. 아버지는 양의나 양약을 믿지 못하고, 여러 약을 썼지만 아내는 타도가 없었다. 아버지의 강경한 태도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위독한 상태의 아내를 손놓고 볼 수밖에 없었어. 이처럼 ‘나’는 아내가 위독하는 전보를 받고 귀국한 건임에도 아픈 아내를 구하려 하기는커녕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 탐고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아내가 죽은 뒤 ‘나’는 다시 도망치듯 일본으로 향해. 한편 집에 도착해서도 일본 형사들이 보낸 청년에게 미행을 당하는 모습에서 조선인들에게 가해지던 감시와 억압은 일상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어.



E-작품의 핵심

작가 소개 **염상섭**

서울 출생. 일본 동경 게이오 대학에 입학했으나 1919년 3·1 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투옥되는 바람에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하였다. 귀국 후 기자로 활동하다가 문단 활동에 참여하면서 「표본실의 청개구리」, 「만세전」, 「삼대」 등의 대표작을 창작하였다.

주제 지식인이 바라본 조선의 암담한 현실과 이로 인해 느끼는 무기력함

서술상의 특징

- 사실적인 문체로 일제 강점기의 상황을 묘사함
- 냉소적 어조와 자조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냄

주요 인물

| | |
|-----|---|
| ‘나’ |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으로 향함.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무덤으로 인식하지만 극복하려는 의지나 노력 없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무기력한 지식인 |
| 아버지 | 고루한 사고 방식을 가진 전형적인 가부장. 며느리에게 양약을 쓰는 것에 반대하고 사기꾼 같은 김의관만을 신뢰함 |
| 아내 | ‘나’와 결혼했으나 ‘나’의 일본 유학 생활 때문에 홀로 시댁살이를 하다가 병으로 죽음 |
| 김의관 | ‘나’의 집에 빌붙어 아버지의 신임을 얻고 밤중에 술을 마시러 다니는 사기꾼. 허세를 부리다가 유치장에 잡혀 들어가기도 함 |

[1406도평B]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해설 P.27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그도 그럴 것이 다. 미친 체하고 떡묵판에 엮으려진다는 셈으로 미친 체하고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스라소니 행세를 하거나 하여, 어쨌든 저편의 호감을 사고 저편을 웃기기만 하면 목전에 닥쳐오는 핍박은 면할 것이다. 속으로는 요놈 하면 서라도 얼굴에만 웃는 빛을 띠면 당장의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공포(恐怖), 경계(警戒), 미봉(彌縫), 가식(假飾), 굴복(屈服), 도회(韜晦)*, 비굴(卑屈)……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 방도요, 현명한 처세술이다. 실상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오늘에 터득한 것이 아니요,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 전체 밑에서 더께가 앉고 굳어 빠진 껍질이지마는, 그 껍질 속으로 점점 더 파고들어 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 생활이다.

“어떻든지 그저 내지인과 동등한 대우만 해 주면 나중엔 어찌 되든지 살아갈 수 있겠죠.”

청년은 무엇에 쫓겨 가는 사람처럼 차 안을 휘휘 둘러다 보고 나서 목소리를 한층 낮추어서 다시 말을 잇는다.

“가령 공동묘지만 하더라도 내지에도 그런 법률이 있다 하면 싫든 좋든 우리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유품이 있지 않습니까? 대관절 내지에도 그런 법이 있나요?”

의외에 이 장돌뱅이도 공동묘지 이야기를 꺼낸다. 나는 아까 형님한테 한참 설법을 듣고 오는 길에 또 이러한 질문을 받고 보니, 언제 규정이 된 것이요 어떻게 시행하라는 것인지는 나로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까짓 것은 아무렇게나 상관없는 일이지마는, 아마 묘사(묘사) 경향에서 모여 앉으면 꽤 문젯거리, 화젯거리가 되는 모양이다. 나는 한번 꺾꺾 웃어 주고 싶었으나 그리할 수는 없었다.

“일본에도 공동묘지가 있대우.”

나 역시 누가 듣지나 않는가 하고 아까부터 수상쩍게 보이던 저편 뒤로 킁킁한 구석에 금테를 한 동 두른 모자를 쓴 채 외투를 뒤집어쓰고 누웠는 일본 사람과, 김천서 나하고 같이 오른 양복쟁이 편을 둘러다 보았다.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총독정치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무슨 오해가 생길지 그것이 나에게서 염려되는 것이었다.

“정말 내지에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하지만 행세하는 사람야 좀 다르겠죠?”

“그야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일본에서는 주로 화장을 지내기 때문에 타고 남은…… 아마 목구멍 뼈라든가를 갖다가 묻고 목뎀든지 비석을 세운다우. 그러지 않아도 살아 있는 사람도 터전이 좁아서 땅 조각이 금 조각 같은데, 죽는 사람마다 넓은 터전을 차지하다가는

이 세상에는 무덤만 남고 말지 않겠소, 히허히.”

나는 이러한 소리를 하면서도 모자를 간략하게 하여 지면을 축소하고 남은 땅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고 마누라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그리구서니 자기의 부모나 처자를 죽었다구 금세루 살라야 버릴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대대로 내려오는 제 집 산소까지를.”

이 사람은 나의 말이 옳다는 모양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도 그래도 반대를 한다.

“화장을 지낸다기루 상관이 뭐겠소. 예전에 애급이라는 나라에서는 왕후장상의 시체는 방부제를 쓰고 나무 관에 넣은 시체를 다시 석관까지에 튼튼히 넣어서 피라미드라는 큰 굴 속에 묻어 두었지만, 지금 와서는 미이라 밖에는 되지 않고 만 것을 보면 죽은 송장에게 능라주의(綾羅紬衣)*를 입히고 백 평, 천 평 되는 땅에다가 아무리 굳게 파묻기로 그것이 무엇이랄 말이오. 동상을 세우면 무얼 하고 송덕비를 세우면 무엇에 쓴다는 말이오.”

내 앞에 앉았는 장꾼은 무슨 소리인지 귀에 자세히 들어 오지 않는 모양이다.

“네에, 그런 것이 있어요?”

하고 멀거니 앉았다.

“하여간 부모를 생사장제(生事葬祭)에 예(禮)로써 받들어야 할 거야 더 말할 것 없지마는, 예로 하라는 것은 결국에 공경하는 마음이나 정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소? 그러니 공동묘지 법이란 난 아직 내용도 모르지마는, 그것은 별문제로 치고라도, 그 근본정신은 생각지 않고 부모나 선조의 산소 치례를 해서 외화(外華)나 자랑하고 음덕(蔭德)이나 바라다는 것도 우스운 수작이란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소. 지금 우리는 공동묘지 때문에 못살게 되었소? 염통 밑에 쉬는 줄은 모른다구, 갑살릴* 것 다 갑살리고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도 죽은 뒤에 파묻힐 곳부터 염려를 하고 앉았을 때인지? 너무도 얼빠진 늙둥이 수작이 아니오? 히허히.”

나는 형님에게 하고 싶던 말을 장돌뱅이로 돌아다니는 이 자를 붙들고 한참 푸념을 하였다.

- 염상섭, 「만세전」 -

*도회: 재능이나 학식 따위를 숨겨 감춤.
*능라주의: 비단옷과 명주옷.
*갑살리다: 재물이나 기회 따위를 흐지부지 다 없애다.

0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징적 배경을 통해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② 냉소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④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⑤ 인물들의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주제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02 ‘공동묘지 법’과 관련한 인물들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공동묘지 법’ 시행에 따른 ‘화장’의 제도화를 우려하고 있다.
- ② ‘나’는 ‘공동묘지 법’의 시행 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③ ‘나’는 ‘공동묘지 법’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 ④ ‘장돌뱅이’는 ‘공동묘지 법’의 목적이 묘지를 없애 집터를 넓히는 데 있다고 믿고 있다.
- ⑤ ‘장돌뱅이’는 ‘공동묘지 법’이 ‘애급’의 관습을 따른 것이라는 사실에 흥미로워 하고 있다.

0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920년대 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염상섭은 개인의 발견과 현실 인식이라는 소설의 근대적인 특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인칭 시점을 적용한 소설을 통해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을 모색하여, 개성의 표현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였다. 나아가 그는 생활 현실에 근거한 문학으로 관심을 확장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문예는 생활의 기록이요, 흔적이요, 주장이다. 생활에 대한 염상섭의 새로운 인식은 생활의 표현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려는 근대 문학의 정신에 접근하고 있다.

- ① 시속의 ‘처세술’에 대해 성찰하여 평가한 점을 통해, 생활의 문제에 대한 작가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생활 철학’을 터득하려는 개개인의 의지를 옹호한 점을 통해, 개인의 발견에 관한 작가의 의식을 이해할 수 있겠군.
- ③ ‘지금의 우리 생활’을 ‘봉건적’ 의식과 문화에 견주어 문제 삼은 점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려는 작가의 시각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일상적 관심사로 오르내리는 ‘화젓거리’를 이야기한 점을 통해, 생활의 흔적을 기록하려는 작가의 노력을 살필 수 있겠군.
- 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가 서술하도록 설정한 점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는 문학의 방식을 모색하는 작가의 관심을 찾아볼 수 있겠군.

[0609모평]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해설 P.28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진 않은가요?”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또다시 입을 벌렸다.
 “뭘요, 어딜 가든지 조금도 염려 없쇠다. 생번*이라 하여
 도 요보*는 온순한 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요 현병인데
 손 하나 꺾잡할 수 있나요. 그걸 보면 데라우치(寺內) 상
 이 참 손아귀 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것이야 많지요. 어딜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
 만, 요새 돈 물 것이 푹 하나 있지요.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하하하.”
 표독한 위인이 충동이는 ㉠수작이다.
 “그런 별이가 어디 있어요?”
 촌뜨기 선생은 그 큰 눈을 더 둥그렇게 뜨고 큰 기대와 호
 기심을 가지고 마주 쳐다보는 모양이다.
 “왜요, 한번 해 보시려우?”
그는 이렇게 한마디 충동이며, 무슨 의미나 있는 듯이
 그 악독하여 보이는 얼굴에 교활한 웃음을 띠고 한참 마
 주 보다가,
 “시골서 죽도록 땅이나 파먹다가 거꾸러지는 것보다는 편
 하고 재미있습낸다. 게다가 돈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고.”
 여전히 뱅글뱅글 웃으면서 이 순실한, 어머니 뺨속에서
 나온 그대로 있는 듯한 ㉡촌뜨기를 꺾다.
 “그런 선반에서 떨어지는 떡 같은 장사가 있으면 하다 뿐
 이겠나요.”
 촌뜨기는 차차 침이 괴어 오는 수작이다.
 “그러나 밀천이 아주 안 드는 것은 아니지요. 우선 얼마
 안 되지만 보증금을 들여놓아야 하고, 양복이나 한 벌 장
 만하여야 할 터이니까. 그러나 당신이야 형님이 현병대
 에 계시다니까 신분은 염려 없을 테니 보증금은 없어도
 좋겠지.”
 제 판은 누구를 큰 직업이나 얻어 주는 듯 싶이, 더구나
 보증금은 특별히 면제하여 주겠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로 어
 깨를 뒤틀며 호기만장이다. 일편 촌뜨기는 양복 신사가 돼
 야 하는 직업이라는 데에 속으로 해에 하는 ㉢기색이다. 그
 러나 정작 그 직업의 종류가 무엇인가는 좀처럼 가르쳐 주
 지 않는다. 실상 곁에서 엿듣고 앉았는 나 역시 궁금하지만,
 이러한 소리를 듣는 시골 꺾자는 더한층 호기의 눈을 번쩍
 이며 앉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을 토설치 않는 것은 나
 와 그 외의 두세 사람이 들을까 꺼리어서 그리하는 것 같기

도 하고, 또는 그 시골뜨기가 좀 더 몸이 달아 덤비며 자기
 의 부하가 되겠다는 다짐까지 받고서야 이야기하려는 수단
 같기도 하다.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단 말요?”
 이번에는 그 시골자에 동행인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들
 고 있다가 욕탕에서 시뻘정계 단 몸뚱어리를 무거운 듯이 끌
 어내며 물었다. ㉣그자도 물 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한번 욕욕탕 속을 휘 돌
 아다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의 이야기에는 무심히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먹을 감는 것을 살펴본 뒤에, 안심한 듯이
 비로소 목소리를 낮추며 입을 벌린다.

“실상은 누워 떡 먹기지. 나두 이번에 가서 해 오면 세 번
 짜나 되오마는,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 가지고 요보들
 을 붙들어 오는 것인데, 즉 조선 쿨리(苦力)* 말씀요. 농
 촌 노동자를 빼내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
 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는 평안
 도에서 모집을 해오는 것인데, 그 중에도 경상남도가 제
 일 쉽습낸다, 하하하.”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 버렸다.

(중략)

“그래 조선 농군들이 가서 그런 공사일을 잘들 하나요?”
 “잘 하구 못 하는 것은 내가 아랑곳 있겠소마는, 하여간
 요보는 말을 잘 듣고 쿨리만은 못해도 힘드는 일을 잘 하
 는 데다가 샅전이 혈하니까 안성맞춤이지. 그야 처음 데
 려갈 때에는 품삯도 많고 일은 드러누워서 떡 먹기라고
 폭 살아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갈 노자며 처자까지 데리
 고 가게 하고, 게다가 빚까지 갚아 주는 데야 제 아무런
 ㉤높이기로 아니 따라 나설 놈이 있겠소. 한번 따라 나서
 기만 하면야 전차(前借)가 있는데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
 지. 일이 고되거나 품이 혈하긴 고사하고 굶어 뒤된다기
 루 하는 수 있나, 하하하.”

별써 부하가 되었다는 듯이 득의만면하여 모집 방법의 비
 책까지 도도히 설명을 하여 주고 앉았다.

나는 좀 더 들으려고 일부러 머뭇머뭇하며 앉았으려니
 까, 승객이 다 올라탔는지, 별안간에 욕객의 한 떼가 또 왁
 자하고 들이 밀려오기에 나는 그만 들고 몸을 흠치기 시작
 하였다.

스물두셋쯤 된 책상도련님인 나로서는 이러한 이야
 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생이 어떠한지,
 인간성이 어떠한지, 사회가 어떠한지 하여야 다만 심
 심파적으로 하는 탁상의 공론에 불과한 것은 물론이

[A]

다. 아버지나 조상의 덕택으로 글자나 언어 배웠거나 소설 권이나 들춰 보았다고, 인생이니 자연이니 시니 소설이니 한대야 결국은 배가 불러서 투정질하는 수작이요, 실인생, 실사회의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얼마만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하고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것,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 년 열두 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반년짜는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하는 말을 들을 제,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날만치 나의 귀가 빈쩍하리만치 조선의 현실을 몰랐다. 나도 열살 전까지는 부모의 고향인 충청도 촌 속에서 자라났고, 그 후에도 일 년에 한두 번씩은 촌락에 발을 들여 놓아 보았지만, 실마 그렇게까지 소작인의 생활이 참 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 염상섭, 「만세전」 —

- *생변: 교화되지 않은 야만인.
- *요보: 일제 시대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을 얕잡아 부르던 말.
- *쿨리: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하층의 중국인·인도인 노동자.

0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해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 ② 감각적 묘사를 통해 공간 배경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 ③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이야기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④ 사건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평가를 독자에게 맡기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관찰한 사실과 판단한 내용이 함께 기술되고 있다.

05 윗글에 나타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려 한다. 판단의 내용과 근거가 가장 적절한 것은?

| | 인물 | 판단 내용 | 판단의 근거 |
|---|----------------|--------|----------------------------------|
| ① | 시골자 | 어수룩함 | 자신을 충동하는 '그'의 말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
| ② | 시골자 | 어리석음 |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의 부하라도 되겠다고 결심한다. |
| ③ | 그 | 눈치 없음 |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랑곳하지 않고 큰 목소리로 떠든다. |
| ④ | 그 | 용의 주도함 | 질문을 통해 '시골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간다. |
| ⑤ |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 | 소심함 | 확자하게 들어온 '육객'을 의식해 말을 멈춘다. |

06 윗글을 읽은 학생들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에 처음 간다', '승객'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인물들은 여행 중인 것 같아. 이 작품에서 여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 ② 지식인인 '나'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으로 보아 작가의 세계관이 '나'에 투영되었을 수 있겠군. 작가의 생애를 조사해 보아야겠어.
- ③ 작가는 풍자적인 묘사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허위의식을 드러내고 있어. 이를 통해 당시 조선 청년들의 윤리 의식의 부재를 고발하는 것 같아.
- ④ 농민들의 어려움을 서술한 부분들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궁핍한 현실을 짐작할 수 있었어. 당시의 신문을 통해 실상을 확인해 보아야겠어.
- ⑤ 조선인 노동자를 싼값에 일본으로 팔아넘긴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 인간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비인간적 행태를 납득할 수 없었어.

07 [A]의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 ②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
- ③ 자기 정체성에 대해 책상물림이라고 자조(自嘲)하고 있다.
- ④ 민중들의 삶의 실상을 알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 ⑤ 자신의 이상과 가족들의 기대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08 ㉠~㉣에서 낯잡아 이르는 말이 아닌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MEMO

34

현대산문

황석영

삼포 가는 길

한/줄/평

추운 겨울날, 동행을 통해 서로를 향한 이해와 따뜻한 배려에 이르게 되는 세 사람

작품 간추려 읽기

영달은 공사판에서 일하며 먹고사는 인물인데, 겨울이 오면서 다음 봄까지 공사가 중단되자 그동안 밀린 밥값을 헤어먹고 도망치려 해. 그러던 중 길에서 우연히 정 씨와 만나고, 그들은 정 씨의 고향이라는 삼포로 함께 향하게 되지.

특 정 씨로부터 비옥한 땅이 있는 아름다운 섬이라는 삼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얼어붙은 강을 건너 (**영** 결정적 장면 ①) 탄생이라는 마을에 도착한 영달과 정 씨는 잠시 배를 태우기 위해 한 주점으로 들어가. 그곳 주인으로부터 점원인 백화가 간밤에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주인은 영달과 정 씨에게 백화를 잡아오면 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지.

평평 내리는 함박눈을 맞으며 기차역이 있다는 감탄으로 길을 나선 영달과 정 씨는 도중에 백화와 마주치게 돼. 탄생에 있는 주점 주인으로부터 그녀를 대신 잡아다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한 탄에 정 씨와 백화가 잠시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지만, 이윽고 세 명은 함께 길을 나서게 되지.

감탄 가는 길목에 있는 마지막 마을에서 세 사람은 추위를 피해서 잠시 쉬기 위해 한 폐가에 들어가. 그곳에서 백화가 털어놓은 그녀의 과거사를 들은 이들은 서로의 내면을 이해하고 연민의 심정을 갖게 되지. (**영** 결정적 장면 ②) 이후 다시 길을 나서 감탄에 있는 기차역에 도착하자 백화는 영달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해. 하지만 영달은 이를 거절하고, 대신 가진 돈을 모두 털어 백화에게 기차표와 먹을거리를 사서 건넨 뒤 배웅하지. 개탈구로 나가다 다시 뛰어난 백화는 그들에게 자신의 본명을 알려준 뒤 기차를 타고 떠나.

특 이후 대합실에서 삼포로 가는 열차를 기다리던 영달과 정 씨는 한 노인으로부터 삼포가 공사판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 십 년 만에 고향을 찾는 길이던 정 씨는 지금의 삼포가 자신의 기억 속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에 갑자기 멍해지. 노인의 말을 들은 영달은 그곳에서 일자리를 잡자고 하지만, 정 씨는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며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기차에 올라. (**영** 결정적 장면 ③)

결정적 장면

① 길에서 우연히 만난 영달과 정 씨가 함께 삼포를 향해 길을 떠남

“얼마나 있었소?”

사내가 물었다. 가까이 얼굴을 맞대고 보니 그리 흉악한 몰골도 아니었고, 우선 그 시원시원한 태도가 은근히 밍질 않다 고 영달이는 생각했다. 그가 자기보다는 몇 살쯤 더 나이 들어 보였다. 그리고 이 바람 부는 겨울 들판에 척 걸터앉아서도 만사태평인 꼴이었다. 영달이는 처음보다는 경계하지 않고 대답했다. 여기서 사내는 ‘정 씨’를 말해. 영달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정 씨를 처음에는 약간 경계하였는데, 그와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정 씨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씩 풀어지는 모습이야.

“넌 달 있었소. 그런데 노형은 어디루 가쇼?”

“삼포(森浦)에 갈까 하오.”

사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조용히 말했다. 영달이가 고개를 흔들었다.

“방향 잘못 잡았수. 거긴 벽지나 다름없잖소. 이런 겨울철에.”

“내 고향이요.”

사내가 목장갑 낀 손으로 코밑을 쓱 훑쳐 냈다. 그는 벌써 들판 저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달이와는 전혀 사정이 달라진 것이다. 그는 집으로 가는 중이었고, 영달이는 또 다른 곳으로 달아나는 길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향인 삼포라는 뚜렷한 목적지가 있는 정 씨와 달리, 이곳저곳 공나판을 전전하며 날아가는 영달에게는 정해진 목적지가 없어.

“참…… 집에 가는군요.”

사내가 일어나 멍꽂이 배낭을 한쪽 어깨에다 걸쳐메면서 영달이에게 물었다.

“자, 난 이제 가봐야겠는걸.”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질척이는 독길을 향해 올라갔다. 그가 독 위로 올라서더니 배낭을 다른 편 어깨 위로 바꾸어 메고는 다시 하반신부터 차례로 개털모자 끝까지 독 너머로 사라졌다. 영달이는 어디로 향하겠다는 별 뾰족한 생각도 나지 않았고, 동행도 없이 길을 갈 일이 아득했다. 가다가 도중에 헤어지게 되더라도 우선은 말동무라도 있었으면 싶었다. 그는 멍청히 섰다가 켄걸음으로 사내의 뒤를 따랐다. 영달이는 독 위로 뛰어올라갔다. 사내의 걸음이 무척 빨라서 벌써 차도로 나가는 셋길에 접어들어 있었다. 차도 양쪽에 대빛자루를 거꾸로 박아 놓은 듯한 앙상한 포플러들이 줄을 지어 섰는 게 보였다. 그는 독 아래로 달려내려가며 사내를 불렀다.

“여보쇼, 노형!”

그가 멈춰 서더니 뒤를 돌아보고 나서 다시 천천히 걸었다. 영달이는 달려가서 그 뒤편에 따라붙어 혈떡이면서,

“같이 갑시다. 나두 월출리까진 같은 방향인데…….” 이렇다 할 갈 곤도, 의지할 동행도 없어 막막한 처지였던 영달은 정 씨를 따라 길을 내서기로 하니.

했는데도 그는 대답이 없었다. 영달이는 그의 뒤통수에다 대고 말했다.

“젠장, 이런 겨울은 처음이요. 작년 이맘때는 좋았지요. 월 삼천 원짜리 방에서 작부랑 살림을 했으니까. 엄동설한에 정말 갈데없이 뻗뻗하게 됐는데요.”

“우린 습관이 되어 놔서.”

사내가 말했다.

“삼포가 여기서 몇 린 줄 아쇼? 좌우간 바닷가까지만도 몇백 리 길이요. 거기서 또 배를 타야 해요.”

“몇 년 만입니까?”

“십 년이 넘었지. 가봤자…… 아는 이두 없을 거요.”

“그럼 뭇 하러 가쇼?”

“그냥…… 나이 드니까, 가보구 싶어서.” 십 년이 넘는 세월 만에 고향을 찾는 정 씨와 엄동설한에 갈 곳이 없어 방황하던 영달이 일행이 되어 길을 내서면서 이 작품의 본격적인 서사가 전개될 거야.

(중략)

강물은 퐁퐁 얼어붙어 있었다. 얼음이 녹았다가 다시 얼곤 해서 우툴두툴한 표면이 그리 미끄럽지는 않았다. 바람이 불어, 깨어진 살얼음 조각들을 날려 그들의 얼굴을 따갑게 때렸다.

“차라리, 저쪽 다릿목에서 버스나 기다릴 걸 잘못했나 봐요.”

숨을 헉헉 들이켜던 영달이가 투덜대자 정 씨가 말했다.

“자주 끊겨서 언제 올지두 모르오. 그보다두 현금을 아껴야지. 굶어두 돈 있으면 든든하니까.” 삼포까지 먼 길을 떠나는 일행은 여비를 아끼기 위해 투운 날씨임에도 퐁퐁 언 강 위를 걸어서 가고 있어.

“하긴 그래요.”

“월출 가면 남행 열차를 탈 수는 있소. 거기서 기차 타려오?”

“뭘…… 뭘 가는 대루. 그런데 삼포는 어느 쪽입니까?”

정 씨가 막연하게 남쪽 방향을 툅짓으로 가리켰다.

“남쪽 끝이오.”

“사람이 많이 사나요, 삼포라는 데는?”

“한 열 집 살까? 정말 아름다운 섬이오. 비옥한 땅은 남아돌아 가구, 고기두 얼마든지 잡을 수 있구 말이지.”

영달이가 얼음 위로 미끄럼을 지치면서 말했다.

“아아, 그럼, 거기 가서 아주 말뚝을 박구 살아 버렸으면 좋겠네.” 영달과 정 씨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찾아가고 있는 삼포는 사람이 많이 살지는 않지만 비옥한 땅이 있는 아름다운 섬마을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어. 정 씨는 자신의 고향을 마치 이상향처럼 자랑스레 말하고 있고, 이를 들은 영달도 삼포가 그렇듯 좋은 곳이라면 지금과 같은 뜨내기 신세에서 벗어나 정착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네.

“조오치. 하지만 맥은 안 될걸.”

“어째서요.”

“타관 사람이니까.”

그들은 얼어붙은 강을 건넜다. 구름이 몰려들고 있었다.

장면 선정 이유

이 장면은 작품의 초반부로, 길에서 만난 영달과 정 씨가 동행을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공나 판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신세인 영달과 십 년이 넘는 세월 만에 고향을 찾아가는 정 씨, 그리고 그가 기억하고 있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공간으로서의 고향 삼포 등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고 있다. 이처럼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가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서사 전개의 중심축이 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여로형 소설로 분류할 수 있어. 따라서 삼포를 향한 여로에서 영달과 정 씨가 겪는 사건과 그 과정에서 인물들이 보여 주는 인식, 행동 등이 주제 의식과 긴밀히 연결될 테니, 이를 탐고하면서 작품을 읽고 정리해 나가면 좋을 거야.

② 백화와 동행하던 과정에서 그녀의 과거사를 듣게 되는 영달과 정 씨

세 사람은 나란히 눈 쌓인 산길을 걸었다. 백화가 말했다.

“그럼 반말 놓지 말라구요.”

영달은 입맛을 쩍쩍 다셨고, 정 씨가 물었다.

“어디까지 가요?”

“집에요.”

“집이 어딘데…….”

“저 남쪽이에요. 떠난 지 한 삼 년 됐어요.”

영달이가 말했다.

“애네들은 긴밤 자다가두 툇하면 내일 당장에라도 집에 갈 것처럼 말해요.”

백화는 아가와 같은 적의는 나타내지 않았다. 백화는 귀 옆으로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자꾸 쓰다듬어 올리면서 피곤한 표정으로 영달이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래요. 밤마다 내일 아침엔 고향으로 출발하리라 걱정하죠. 그런데 마음뿐이지, 몇 년이 흘러요. 막상 걱정하고 나서 집을 향해 가보는 적두 있어요. 나는 꼭 두 번 고향 근처까지 가봤던 적이 있어요. 한번은 동네 어른을 면발치서 봤어요. 나 이름이 백화지만, 가명이에요. 본명은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아.” 영달과 정 씨 두 사람이 동행하던 길에 백화가 합류하여. 함께 길을 나선택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아직 백화가 영달과 정 씨를 향해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지는 않은 상태를 짐작할 수 있지. 이

데 백화가 자신의 본명은 따로 있지만 아무한테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한 말을 잘 기억해 두다. 이후 결정적 장면 ③으로 제시할 결말 부분의 내용과 연결되니까 말이야.

정 씨가 말했다.

“서울식당 사람들이 월출역으루 지키러 가던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인가요 며. 벌써 그럴 줄 알구 감천 가는 길루 왔지요. 촌놈들이니까 그렇지, 빠른 사람들은 서너 군데 길목을 딱 막아 놓아요. 나 그 사람들에게 손해 끼친 거 하나두 없어요. 빗이래야 그치들이 빨아먹은 나머지구요. 아유, 인젠 술하구 밤이라면 지긋지긋해요.” 두덤에서 일하며 녹록티 않은 삶을 살아온 백화의 터지가 그녀의 말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중략)

백화는 주점 ‘갈매기집’에서의 나날을 생각했다. 그 여자는 날마다 뒷마루에 걸터앉아서 철조망의 네 귀퉁이에 높다른 망루가 서 있는 군대 감옥을 올려다보았던 것이다. 언덕 위에 흰 뽕기로 칠한 반달형 퀘셋 막사와 바라크가 늘어서 있었고 주위에 코스모스가 만발해 있어, 그 안에 철창이 있고 죄지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으리라고는 믿어지질 않았다. 하루에 한 번씩, 긴 구령 소리에 맞춰서 붉은 줄을 친 군복에 박박 깎인 머리의 군 죄수들이 바깥으로 몰려나왔다. 죄수들이 일렬로 서서 세면과 용변을 보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간혹 대여섯 명씩 무장 헌병의 감시를 받으며 마을로 작업을 하러 내려오는 때도 있었다. 등에 커다란 광주리를 메고 고개를 숙인 채로 그들은 줄을 지어 걸어왔다.

“처음에 부산에서 잘못 소개를 받아 술집으로 팔렸었지요. 거기에 갔을 땐 벌써 될 대루 되라는 식이어서 겁나는 것두 없었구요, 나이는 어렸지만 인생살이가 고달프다는 것두 깨달았던 말예요.” 백화가 자신의 과거나를 회상하며, 영달과 정 씨에게 이를 들려주고 있어.

어느 날 그들은 마을의 제방공사를 돕기 위해서 삼십여 명이 내려왔다. 출감이 멀지 않은 사람들이라 성깔도 부리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그리 경원하지 않았다. 그들이 밖으로 작업을 나오면 기를 쓰고 찾는 것은 물론 담배였다. 백화는 담배 두 갑을 사서 그들 중의 얼굴이 해사한 죄수에게 쥐어 주었다. 작업하는 열흘간 백화는 그들의 담배를 땀다. 날마다 그 어려 보이는 죄수의 손에 몰래 쥐어 주곤 했다. 다음부터 백화는 음식을 장만해서 감옥 면회실로 그를 만나러 갔다. 옥바라지 두 달 만에 그는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백화를 만나러 왔다.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병사는 전속지로 떠나갔다.

“그런 식으루 여덟 사람을 옥바라지했어요.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 그이는 앞사람들처럼 하룻밤을 지내구 떠나가군 했어요.”

백화는 그런 일 때문에 갈매기집에 있던 시절, 옷 한가지도 못 해입었다. 백화는 지나간 삭막한 삼 년 중에서 그때만큼 즐겁고 마음이 평화로웠던 시절은 없었다. 과거 원티 않게 놀림으로 팔려갔던 백화는 두덤 근처의 군 감옥에 누감되어 있는 군인들을 자판해서 옥바라지하였어. 이를 통해 고달픈 날 속에서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찾았던 거디. 그 여자는 새로운 병사를 먼 전속지로 떠나보내는 아침마다 차부로 나가서 먼지 속에 버스가 가리울 때까지 서 있곤 했었다. 백화는 그 뒤부터 부대 근처를 전전하며 여러 고장을 흘러다녔다.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고, 사위는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 왔다.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비단 감옥뿐만 아니라, 세상날이 자태가 고해(고통의 세계)라는 말에서 핑계 운 삶을 살고 있는 이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이 드러나.

정 씨는 벗어서 불가에다 찌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새들이 이리저리로 깃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 영달이가 백화에게 물었다.

“그래 이젠 어떡할 셈요, 집에 가면……?”

백화가 대답을 않고 웃기만 했다. 정 씨가 말했다.

“시집가야지 뭐.”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조용히 틀어박혀 집의 농사나 거들지요. 동생들이 많아요.”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향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빠졌는지 백화는 꼼짝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는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쁜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어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댁이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구.” 길을 걷던 중 발목을 뺀 백화를 업은 영달은 고단한 날 속에서 쇠약해진 탄인지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백화 때문에 울컥한 심정을 느끼고 있어. 앞서 들었던 백화의 과거사를 통해서 그녀에게 연민의 정과 함께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이겠다.

장면 선정 이유

영달, 정 씨, 백화 세 사람이 동행하면서 정 씨 서로를 향한 거리감을 허물고 그들이 살아온 고달픈 삶에 대한 연민과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장면이야. 여기에는 세 사람이 투위를 피하기 위해 잠시 들른 어느 폐가에서 백화가 자신의 과거사를 들려주게 된 것이 계기로 작용했다. 백화는 어린 나이에 원치 않게 화류계로 흘러들게 되면서부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물이야. 백화는 그런 자신의 사연을 영달과 정 씨에게 당당하게 늘어놓는데, 이를 들은 두 사람 역시 고단한 삶을 살아왔기에 그녀의 처지를 이해하며 정서적인 거리를 좁히게 되는 거지. 이처럼 원만함에서는 외적으로 갈등하는 듯 보였던 세 사람이 서로를 향한 인식과 관계가 변화될 토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이 장면을 눈여겨봐 둘 필요가 있어.

③ 백화를 떠나보내는 영달과 달라진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듣고 상실감을 느끼는 정 씨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했어 드릴게.” 기타역까지 동행하는 과정에서 영달에게 정 씨가 백화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함께 떠나자고 제안하고 있어.

“내야 삼포루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 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영달이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끈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ㄷ1** **대합실에서** 정 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있소?”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천 원쯤 있으니까.”

“어디루 가려요?”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 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지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구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정 씨는 영달에게 이번이 뜨내기 신세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하며 백화를 타라나서라고 권유하고 있어.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쭈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하지만 영달은 백화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함께 생계를 꾸리며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망설이고 있다.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오백 원짜리 두 장을 꺼냈다.

“저 여잘 보냅시다.”

영달이는 표를 사고 ⁴²삼립빵 두 개와 찢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뒤차를 탈 텐데…… 잘 가슈.” 결국 영달은 백화와는 다른 길을 터나기로 하고, 비상금을 모두 털어 난 먹을거리를 건네며 이별을 고하고 있어. 이때 영달이 백화를 위해 난 빵과 달걀은 영달의 타뜻한 마음을 보여 주는 노대라고 할 수 있다.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쥔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루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영달이 대신 정 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통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앓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영달이 자신과 함께 터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에 아쉬움과 슬픔을 느끼던 백화는 그에게 이점례라는 본명을 알려준 뒤 터나. 돌직박부로 일할 때 뺏던 백화라는 예명이 아닌 자신의 본명을 알려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동행하는 동안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쌓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한 시간쯤 잤다. 깨어 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기차는 연착이었다.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영달이가 혼잣말로,

“첻, 며칠이나 견디나…….”

“뉘라구?”

“아뇨, 백화란 여자 말요. 저런 애들…… 한 사람두 촌 생활 못 배겨 나요.” 백화를 터나보낸 후, 영달은 그녀가 고향에 잘 정착해 날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군.

“사람 나름이지만 하긴 그럴 거요. 요즘 세상에 일이 년 안으루 인정이 획 변해 가는 판인데…….”

정 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 왔다.

“어디 일들 가슈?”

“아뇨,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구 아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저 어디 공사 벌일 데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구 감자나 매는데요.” 대합실에서 우연히 만난 노인은 자신의 아들이 삼포에서 불도저(도자) 끄는 일을 한다고 말해. 앞서 결정적 장면 ①에서 정 씨가 삼포에 대해 한적하고 아름다운 섬마을이라고 설명했던 건 기억나지? 그런데 그런 삼포에서 공사장에서나 불 법한 불도저 끄는 일을 한다고 하니, 정 씨는 의아해하며 노인에게 되묻고 있어.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십 년.”

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두 말두,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고, 추력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구.”

“뭇 뱀에요?”

“넌들 아나. 뭇 관광호텔을 여러 채 짓는답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네.”

“동네는 그대루 있을까요?”

“그대루가 뭘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그럼 나룻배두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뭘에 쓰오. 히히, 사람이 많아지니 번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 거든.” 정 씨는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 지난 십 년 동안 삼포에서는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이제는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작정하고 버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 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

“잘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 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곁에 정 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정말 자신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가 맞는지, 그 풍문마저 낯설게 느껴지는 정 씨는 삼포로 향하는 일에 의욕을 잃고 말아. 고향이 없지만, 마음 속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던 예전의 그 고향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 씨는 자신의 입장이 갈 곳 없어 방황하는 뜨내기 신세의 영달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 EBS는 이렇게 물었다

E1 소재의 기능: '대합실'은 백화가 떠나기 전, 영달과 정 씨에게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공간임

E2 소재의 기능: '뺑'과 '달걀'은 여로의 과정에서 만난 백화를 향한 영달의 호의를 드러냄

☞ 장면 선정 이유

작품의 결말 부분으로, 기차역에 도착한 영달과 정 씨가 백화를 떠나보내는 모습이 먼저 그려지고 있어. 후위를 뚫고 함께 긴 길을 걸어 오는 동안 백화는 영달에게 인간적인 호감을 느끼게 돼. 그래서 그와의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고향으로 함께 떠나자고 제안하지. 늘 공나판을 떠돌며 살아온 영달에게 백화의 제안은 그동안의 뜨내기 신세를 벗어나 남들처럼 어딘가에 발붙이고 살아가 수 있는 기회였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러한 삶에 자신이 없었던 영달은 결국 백화를 홀로 떠나보내게 되지. 백화가 영달과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이별을 하면서도 마지막에 자신의 본명을 알려준 것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길을 떠나는 과정에서 느꼈던 유대감과 정을 그에게 꼭 표현하고 싶어서였을 거야.

이후 삼포로 향하는 기차를 기다리던 영달과 정 씨는 한 노인으로부터 달라진 삼포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 노인이 말하는 삼포는 관광호텔을 짓기 위한 개발이 한창인 곳이었다. 이는 이 작품이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1970년대 산업화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 결정적 장면 ①에서 기억 속 삼포의 옛 모습을 자랑스럽게 말하던 정 씨의 모습과 이 장면에서 산업화의 영향으로 '마음의 정처'를 잃게 된 정 씨의 험터름한 반응을 함께 엮어 보면, 작품의 주제 의식이 무언인가를 여실히 알 수 있을 거야.

| 〈보기〉의 내용 | 작품의 근거 | 해제 |
|--|--|---|
| <p>「삼포 가는 길」은 1970년대를 대표하는 여로형 소설로, 산업화가 소외된 이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그려내고 있음</p> | <p>결정적 장면 ㉓ ‘넌들 아나. 뭐 관광호텔을 여러 채 짓는담서, 복잡하하기 말할 수 없네.’</p> <hr/> <p>결정적 장면 ㉓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p> | <p>삼포의 근황을 알려주는 노인의 말을 통해 산업화의 영향으로 과거의 모습을 잃고 관광지로 급변하게 된 정 씨의 고향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음</p> <hr/> <p>삼포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노인의 말을 통해 산업화로 인해 사람들이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음</p> |

| 〈보기〉의 내용 | 작품의 근거 | 해제 |
|---|--|---|
| <p>「삼포 가는 길」의 인물들은 뜨내기기 삶 속에서 고단함을 느끼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공간과 관계에 정주하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냄</p> | <p>결정적 장면 ㉑ ‘아야, 그럼, 거기 가서 아주 말뚝을 박구 살아 버렸으면 좋겠네.’</p> <hr/> <p>결정적 장면 ㉓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구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철 청산해야지.’</p> <hr/> <p>결정적 장면 ㉓ ‘아무도……안 가나요?’</p> <hr/> <p>결정적 장면 ㉓ ‘먼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p> | <p>삼포를 소개하는 정 씨의 말을 들은 영달은 비옥하고 풍요로운 공간인 삼포에서 정착하고 싶은 심정을 드러냄</p> <hr/> <p>정 씨는 영달이 백화와의 관계에 정주함으로써 뜨내기기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음</p> <hr/> <p>백화는 영달과의 관계에 정주하고자 했던 소망이 좌절되자 안타까워하고 있음</p> <hr/> <p>정 씨와 영달이 뜨내기기 삶 속에서 느끼는 고단함이 드러남</p> |

작가 소개 황석영

만주 출생, 고교 재학 시절 신인문학상에 입선하며 등단한 이래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당대인들이 겪은 인간성 상실, 소외된 이들의 황폐한 삶 등의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한 작품 및 훼손된 가치에 대한 복원과 극복을 지향하는 주제를 담은 작품들을 다수 창작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한씨 연대기」, 「삼포 가는 길」, 「아우를 위하여」 등이 있다.

주제 소외된 이들의 고달픈 삶과 서로를 향한 유대 의식

서술상의 특징

- 여로형 소설의 구조를 보임
- 삼포라는 공간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통해 작품의 주제 의식을 형상화함

주요 인물

| | |
|-----|--|
| 영달 |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공사판을 찾아 돌아다니며 생계를 유지하는 뜨내기 노동자. 삼포로 향하던 중 만난 백화에게 연민과 유대감을 느끼지만 그녀와 함께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떠나 보냄 |
| 정 씨 | 길에서 우연히 만난 영달과 십 년여 만에 고향인 삼포를 찾아가고 있는 인물. 평화롭고 풍요로운 고향의 옛 모습을 떠올리며 삼포로 향하지만, 산업화의 영향으로 더 이상 예전의 고향이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게 됨 |
| 백화 | 18세에 가출한 이후 여러 주점을 전전하였으며, 삭막한 삶 속에서 여덟 명이나 되는 군인들의 육바라지를 하는 일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음. 찬샘골의 한 주점에서 도망친 이후 영달 일행을 만나 동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영달에게 호감을 느껴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지만 결국 홀로 고향으로 떠나게 됨 |

[03모평]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해설 P.30

“얼마나 있었소?”

사내가 물었다. 가까이 얼굴을 맞대고 보니 그리 흉악한 몰골도 아니었고, 우선 그 시원시원한 태도가 은근히 밍질 않다고 영달이는 생각했다. 그가 자기보다는 땃살 좀 더 나이 들어 보였다. 그리고 이 바람 부는 겨울 들판에 척 걸터앉아서도 만사 태평인 꼴이었다. 영달이는 처음보다는 경계하지 않고 대답했다.

“넉 달 있었소. 그런데 노형은 어디루 가쇼?”

“삼포에 갈까 하오.”

사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조용히 말했다. 영달이가 고개를 흔들었다.

①“방향 잘못 잡았수. 거긴 벽지나 다름없잖소. 이런 겨울철에.”

“내 고향이오.”

사내가 목장갑 낀 손으로 코밑을 쓱 훑쳐냈다. ㉔그는 벌써 들판 저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달이와는 전혀 사정이 달라진 것이다. 그는 집으로 가는 중이었고, 영달이는 또 다른 곳으로 달아나는 길 위에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참…… 집에 가는군요.”

사내가 일어나 멍꽂이 배낭을 한쪽 어깨에다 걸쳐메면서 영달이에게 물었다.

“어디 무슨 일자리 찾아가쇼?”

㉕“택은 오라는 데가 있어서 여기 왔었소? 언제나 마찬가지로.”

“자, 난 이제 가봐야겠는걸.”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질척이는 독길을 향해 올라갔다. 그가 독 위로 올라서더니 배낭을 다른 편 어깨 위로 바꾸어 메고는 다시 하반신부터 차례로

(가) 개털모자 끝까지 독 너머로 사라졌다. 영달이는 어디로 향하겠다는 별 뽀족한 생각도 나지 않았고, 동행도 없이 길을 갈 일이 아득했다. 가다가 도중에 헤어지게 되더라도 우선은 말동무라도 있었으면 싶었다.

그는 멍청히 섰다가 켜걸음으로 사내의 뒤를 따랐다. 영달이는 독 위로 뛰어올라갔다. 사내의 걸음이 무척 빨라서 벌써 차도로 나가는 샛길에 접어들어 있었다. 차도 양쪽에 대빛자루를 거꾸로 박아 놓은 듯한 앙상한 포플러들이 줄을 지어 섰는 게 보였다. 그는 독 아래로 달려 내려가며 사내를 불렀다.

“여보쇼, 노형!”

그가 멈춰 서더니 뒤를 돌아보고 나서 다시 천천히 걸어갔다. 영달이는 달려가서 그 뒤편에 따라붙어 헐떡이면서,

“같이 갑시다. 나두 월출리까진 같은 방향인데…….”

했는데도 그는 대답이 없었다. ㉖영달이는 그의 뒤통수에 다 대고 말했다.

“젠장, 이런 겨울은 처음이오. 작년 이맘때는 좋았지요. 월 삼천 원짜리 방에서 작부랑 살림을 했으니까. 엄동설한에 정말 갈 데 없이 뺏뺏하게 됐는데요.”

“우린 습관이 되어 놔서.”

사내가 말했다.

“삼포가 여기서 몇 린 줄 아쇼? 좌우간 바닷가까지만도 몇백 리 길이오. 거기서 또 배를 타야 해요.”

“몇 년 만입니까?”

“십 년이 넘었지. 가 봤자……아는 이두 없을 거요.”

“그럼 뭇 허러 가쇼?”

“그냥…… 나이 드니까, 가 보구 싶어서.”

그들은 차도로 들어섰다. 자갈과 진흙으로 다져진 길이 그런대로 걷기에 편했다. 영달이는 시린 손을 잠바 호주머니에 처박고 연방 꼼지락거렸다.

“어이 욱실하게는 춥네. 바람만 안 불면 좀 낫겠는데.”

사내는 별로 추위를 타지 않았는데, 털모자와 야전잠 바로 단단히 무장한 탓도 있겠지만 원체가 혈색이 건강해 보였다. 사내가 처음으로 다정하게 영달이에게 물었다.

“어떻게 아침은 자셨소?”

“웬걸요.”

영달이가 열쩍게 웃었다.

“새벽에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셈인데…….”

“나두 못 먹었소. 찬삼까진 가야 밥술이라두 먹게 될 거요. 진작에 떴을 걸. 이젠 겨울에 움직일 생각이 안 납디다.”

“인사 늦었네요. 나 노영달이라구 합니다.”

“나는 정가요.”

㉗“우리두 기술이 좀 있어 놔서 일단 일자리만 잡으면 별 걱정 없지요.”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

01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회상 형식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 ② 간결한 문체를 통해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 ③ 비속어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지역적인 특성을 가진 소재를 활용하여 토속적인 분위기를 담아내고 있다.
- ⑤ 대화를 통해 인물들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변화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02 '길'의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뒷글을 감상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들은 겨울철에 길을 떠나고 있어. 이것은 이들의 여정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
- ② 영달은 무언가로부터 달아나는 길 위에서 있는 것처럼 보여. 영달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궁금해.
- ③ 주어진 길을 걷는다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정씨가 체념하는 것도 이 때문일 거야.
- ④ 고향으로 가는 길은 자신이 떠나온 길이기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 ⑤ 길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 삶에서 소중한 것은 길의 끝보다는 길을 가는 도중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듯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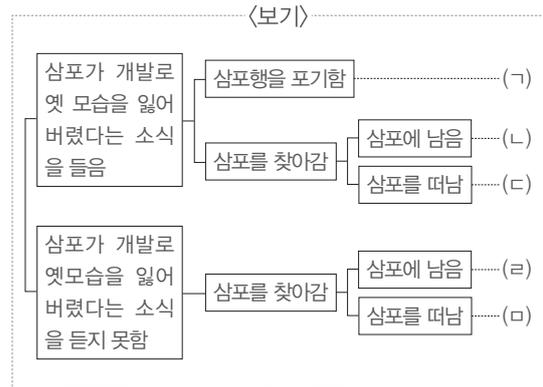
03 (가) 부분을 영화로 만들려고 한다. 영달의 심리가 잘 드러나도록 연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긴장감이 고조되는 배경 음악을 넣어 양자 택일의 갈등을 나타내도록 한다.
- ② 정씨의 모습과 그를 바라보는 영달의 시선을 교차시켜 영달의 내면을 표현한다.
- ③ 표정 연기를 통해 정씨를 따라가고 싶어하면서도 선뜻 따라나서지 못하는 내면을 그려 내도록 한다.
- ④ 카메라를 인물로부터 멀리 잡아 길 위에 혼자 남아 있는 영달의 모습에서 외로움이 드러나도록 한다.
- ⑤ 질척이는 독길을 배경으로 삼아 그 너머로 조금씩 사라지는 정씨의 뒷모습을 통해 영달의 내면을 암시하도록 한다.

0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영달이가 생계 방편을 마련할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② ㉡: 고향을 향하고 있는 정씨의 마음이 담겨 있다.
- ③ ㉢: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노동자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
- ④ ㉣: 자신을 외면하고 걸어가는 정씨에 대한 영달의 반감이 배어 있다.
- ⑤ ㉤: 정씨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영달의 자존심이 담겨 있다.

05 <보기>는 이 소설의 결말에 이르는 과정을 여러 가지로 구상해 본 것이다. (㉠)~(㉤) 각각의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옛 모습을 잃어버린 고향은 의미가 없다. 귀향을 포기하는 결말을 통해, 옛 모습 그대로의 고향을 마음에 간직하려는 애절한 심정을 잘 그려낼 수 있다.
- ② (㉡): 고향이 변했지만 귀향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옛 모습은 사라졌어도 고향에서 새 삶을 살고자 하는 결말을 통해 현실에 순응하는 자세를 잘 그려낼 수 있다.
- ③ (㉢): 한 가닥 미련을 갖고 고향을 찾아가지만 변해버린 모습에 절망한다. 결국 다시 떠나야만 하는 결말을 통해 근대화로 인한 고향 상실감을 잘 그려낼 수 있다.
- ④ (㉣): 기대에 부풀어 고향 땅에 도착한다. 그러나 고향의 현실을 마주하고 나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고향에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의 아픔을 잘 그려낼 수 있다.
- ⑤ (㉤):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희망에 부른다. 하지만 고향의 모습을 바라보고 절망 속에서 또다시 유랑하는 모습을 통해 뿌리뽑힌 자의 아픔을 잘 그려낼 수 있다.

[1403학평A]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해설 P.32

세 사람은 감천 가는 도중에 있는 마지막 마을로 들어섰다. 마을 어귀의 얼어붙은 개천 위로 물오리들이 종종걸음을 치거나 주위를 선회하고 있었다. 마을의 골목길은 조용했고, 굴뚝에서 매캐한 청솔 연기 냄새가 돌담을 휩싸고 있었는데 나직한 창호지의 들창 안에서는 사람들의 따뜻한 말소리들이 불투명하게 들려왔다. 영달이가 정씨에게 제의했다.

“허기가 저서 속이 떨려요. 감천엔 어차피 밤에 떨어질 텐데, 여기서 뭇 좀 얻어먹구 갑시다.”

“여긴 바닥이 작아 주막이나 가게두 없는 거 같은.”

“어디 아무 집이나 찾아가서 사정을 해보죠.”

백화도 두 손을 코트 주머니에 찌르고 간신히 발을 떼면서 말했다.

“온몸이 얼었어요. 밥은 고사하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발이나 녹이구 갔으면.”

정씨가 두 사람을 재촉했다.

“얼른 지나가자. 여기서 지체하면 하룻밤 자게 될 테니, 감천엘 가면 하숙두 있구, 우리를 태울 기차두 있던 말요.”

그들은 이 적막한 산골 마을을 지나갔다. 눈 덮인 들판 위로 물오리 떼가 내려앉았다가는 날아오르곤 했다. 길가에 퇴락한 초가 한 칸이 보였다. 지붕의 한쪽은 허물어져 입을 벌렸고 토담도 반쯤 무너졌다. 누군가가 살다가 먼 곳으로 떠나간 폐가임이 분명했다. 영달이가 **폐가** 안을 기웃해 보며 말했다.

“저기서 신발이라두 말리구 갑시다.”

백화가 먼저 그 집의 눈 쌓인 마당으로 절뚝이며 들어섰다. 안방과 건넌방의 구들장은 모두 주저앉았으나 봉당은 매끈하고 탄탄한 흙바닥이 그런대로 쉬어가기에 알맞았다. 정씨도 그들을 따라 처마 밑에 가서 엉겨주춤 서 있었다. 영달이는 흙벽 틈에 빠죽이 솟은 나무 막대나 문짝, 선반 등 속의 땀 만한 것들을 끌어모아다가 봉당 가운데 쌓았다. 불을 지피자 오랫동안 말라 있던 나무라 노란 불꽃으로 타올랐다. 불길과 연기가 차츰 커졌다. 정씨마저도 불가로 다가 앉아 젖은 신과 바짓가랑이를 불길 위에 갖다대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불이 생기니까 세 사람 모두가 먼 곳에서 지금 막 집에 도착한 느낌이 들었고, 잠이 왔다. 영달이가 긴 나무를 무릎으로 꺾어 불 위에 얹고, 눈물을 흘려가며 입김을 불어대는 모양을 백화는 이윽히 바라보고 있었다.

㉠“**떡에……** 괜찮은 사내야. 나는 아주 치사한 건달인 줄 알았어.”

“이거 왜 이래. 괜히 나이롱 비행기 태우지 말어.”

“아네요. 불때는 꼴이 제법 그럴듯해서 그래요.”

정씨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영달에게 말했다.

“저런 무딘 사람 같으니, 이 아가씨가 자네한테 반했 다…… 그 말이야.”

(중략)

그들은 일곱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켜였는지 파장된 뒤편에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 왔다. 영달이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정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요?”

“전라선이에요.”

“나는 호남선 쪽인데, 여비는 있소?”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구 가면 돼요.”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팔시루떡을 사먹었다. 백화가 자기 뒤편에서 절반을 떼어 영달이에게 내밀었다.

“더 드세요. 날 업구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내야 삼포루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영달이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대합실에서 정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있소?”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천원쯤 있으니까.”

“어디루 가려우?”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씨는 대합실 나무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지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은.”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구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뭇가 쭈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 산문편 ·

현대산문

· 정 답 과 해 설 ·

문제 P.08

현대산문 33

만세전 [염상섭]

| | | | | | | |
|----|------|------|------|------|------|------|
| 정답 | 01 ② | 02 ③ | 03 ② | 04 ⑤ | 05 ① | 06 ③ |
| | 07 ⑤ | 08 ③ | | | | |

[01~03] 1406모평B
염상섭, 「만세전」

01 ②

정답 풀이

'그러니 공동묘지 법이란~너무도 얼빠진 놈들이 수작 아니오?'에서 1인칭 서술자인 '나'가 문제의 실상은 보지 못하고 공동묘지 법만 문제 삼는 세태에 대해 냉소적인 어조로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상을 고려하여 기차가 근대화를 상징한다고 보더라도 윗글에는 갈등의 양상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기차 안이라는 배경이 갈등 해소를 암시한다고 볼 수도 없다.
- ③ 기차 안에서 '나'와 장돌뱅이가 대화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장면 전환이 빈번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부분도 드러나지 않는다.
- ④ 윗글은 기차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만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했다고 볼 수 없다.
- ⑤ 윗글에는 하나의 사건만 전개되고 있을 뿐, 삽화 형식(긴밀하게 연관되지 않은 독립된 이야기들을 결합하는 구성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③

정답 풀이

'나'는 '공동묘지 법'에 대해 장돌뱅이와 대화하면서 '총독정치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오해가 생겨 곤란해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나'는 '화장을 지낸다기류 상관이 뭐겠소.'라고 말했으므로 ' 화장'의 제도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나'는 '공동묘지 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
- ④ 윗글에서 '장돌뱅이'는 '공동묘지 법'의 목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 ⑤ '나'는 조선인의 장례 관습의 허례허식을 지적하기 위해 '애급(이집트)'의 관습을 언급했을 뿐, '공동묘지 법'이 애급의 관습을 따른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또한 '장돌뱅이'는 '나'의 말이 '무슨 소리인지 귀에 자세히 들어오지 않아' '멀거니 갔'아 있으므로 흥미를 느낀다고 볼 수도 없다.

03 ②

정답 풀이

윗글에서 '생활 철학'을 터득하려는 개인의 의지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서술자나 작가가 이를 옹호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보기>에서 '일인칭 시점을 적용한 소설을 통해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을 사용하여 '개인의 발견'이라는 특성을 구체화하였다고 했으므로, '생활 철학'을 터득하려는 개개인의 의지를 옹호함으로써 '개인의 발견'에 관한 작가의 의식'이 드러난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나'는 식민지 현실에 관한 조선 사람들의 처세술에 관해 '현명한 처세술'이라고 평가한다. 식민지 지식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조선의 나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성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활 현실에 근거한 근대 문학의 정신에 접근하려 한 작가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가 '지금의 우리 생활'을 '봉건적 성장과 관료전제 밑에서' 생겨난 것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작가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 ④ 당시의 '화젓거리'인 '공동묘지 법'과 그 법에 대한 조선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작가는 생활의 흔적을 기록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 ⑤ <보기>에서 작가가 '일인칭 시점을 적용한 소설을 통해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을 모색하여, 개성의 표현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윗글의 작가는 1인칭 서술자 '나'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개성있게 표현하는 문학의 방식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4~08] 0609모평
염상섭, 「만세전」

04 ⑤

정답 풀이

서술자인 '나'는 욕탕에서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와 '표독한 위인'이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자신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감상과 판단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윗글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나 '표독한 위인'의 행동과 외양에 대한 묘사는 나타나지만, 공간적 배경을 감각적 묘사를 통해 표현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③ 윗글은 간결한 문체와 심표를 활용한 긴 문체를 모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이야기의 긴장감을 높였다고 볼 수 없다.
- ④ '나'는 욕탕에서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직접 인용하여 보여 주고 있으나, 대화와 인물들에 대한 서술자의 판단과 감정 또한 드러내기 때문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

05 ①

정답 풀이

윗글에서 시골자는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며 총동이는 '그'의 말에 솔깃해한다. '정작 그 직업의 종류가 무엇인가는 좀처럼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보증금을 특별히 면제하여 주겠다'는 '그'의 말을 '눈을 번쩍이며' 듣고 마음이 훤히 있다. 이를 통해 시골자는 '그'의 말을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어수룩한 인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시골자는 '그'의 총동이는 말을 솔깃해하며 듣고 있지만, '그'의 부하가 되겠다고 결심하지는 않았다.
- ③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의 이야기'에 무심한 것을 '살펴본 뒤에, 안심'하고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 ④ '그'는 시골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골자의 궁금증을 유발시키며 대화하고 있다.
- ⑤ 욕객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대화하는 사람은 '그'이다.

06 ③

정답 풀이

윗글의 서술자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시골 사람에 대해 풍자적 어조로 서술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등장인물의 허위의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또한 작가가 고발하려는 것은 당시 조선 청년들의 윤리 의식의 부재가 아니라, 일제의 억압과 수탈이 만연한 현실과 그 현실에 무기력한 조선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조선에 처음 간다', '승객'이라는 표현을 통해 등장인물들이 조선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로형 구조'는 서술자인 '나'가 다른 이들의 대화를 통해 조선의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 ② 윗글의 '나'가 자신을 '스물두셋쯤 된 책상도련님'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나'는 식민지 현실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으로 향하는 '나'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 당시 우리 민족이 처했던 암담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가 목격한 식민지 현실과 그 현실에 대한 '나'의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작품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작가의 세계관이 '나'에게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윗글의 '나'는 욕탕에서 다른 이들의 대화를 통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농민들을 꺾어 혈값에 고된 노동을 강요하는 현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일 년 열두 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반년짜 은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라는 농촌의 현실 또한 알게 된다. 따라서 당시의 신문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궁핍한 현실을 확인해 보겠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 ⑤ '나'는 '표독한 위인'과 '시골자'의 대화를 통해 조선인 농민들을 거짓으로 꺾어 혈값에 고된 노동을 시키는 사업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를 통해 인간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당대의 비윤리적 행태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7 ⑤

정답 풀이

‘아버지나 조상의 덕택으로 글자나 언어 배웠거나 소설 권이나 들춰 보았다고, 인생이니 자연이니 시니 소설이니 한대야 결국은 배가 불러서 투정질하는 수작이요, 실인생, 실사회의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얼마만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나’가 자신이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하려는 것이 당시 조선의 현실과 분리되어 진행되어 왔고, 별 관련이 없이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즉 ‘나’는 자신이 품은 삶의 목표들과 현실이 유리되어 있음에 대한 혼란을 느끼는 것이지, 자신의 이상과 가족들의 기대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내가 지금 하는 것,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나’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일 년 열두 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반년짜는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하는 말을 들을 제,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날만치 나의 귀가 번쩍하리만치 조선의 현실을 몰랐다.’라는 부분에서 ‘나’가 조선 현실에 대해 새롭게 인식했고 그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스물두셋쯤 된 책상도련님인 나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생이 어떠한지, 인간성이 어떠한지, 사회가 어떠한지 하여야 다만 심심파적으로 하는 탁상의 공문에 불과한 것은 물론이다.’라는 부분에서 ‘나’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 책상물림이라고 자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나도 열 살 전까지는 부모의 고향인 충청도 촌 속에서 자라났고, 그 후에도 일 년에 한두 번씩은 촌락에 발을 들여놓아 보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소작인의 생활이 참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나’가 민중들의 삶의 실상을 알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8 ③

정답 풀이

‘기색’은 ‘마음의 작용으로 얼굴에 드러나는 빛’ 또는 ‘어떠한 행동이나 현상 따위가 일어날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여 주는 눈치나 김새’를 의미하므로 낮춤말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수작’은 ‘남의 말이나 행동, 계획’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 ② ‘촌뜨기’는 ‘촌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 ④ ‘그자’는 ‘그 사람’을 조금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 ⑤ ‘놈’은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문제 P.22

현대신문 34

삼포 가는 길 [황석영]

| | | | | | | |
|----|------|------|------|------|------|------|
| 정답 | 01 ⑤ | 02 ③ | 03 ① | 04 ④ | 05 ④ | 06 ① |
| | 07 ① | 08 ③ | 09 ② | | | |

[01~05] 03모평
황석영, 「삼포 가는 길」

01 ⑤

정답 풀이

윗글에서 영달과 정씨는 처음 만나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에 행선지를 묻고 답하는 등 큰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러다 영달이 삼포로 향하는 정씨를 따라가면서 과거 등을 이야기하며 통성명을 하는 관계가 되고 있다. 즉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진전되면서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회상 형식이 아닌 영달과 정씨의 대화에서 과거가 드러난다.
- ② 윗글에서 영달과 정씨는 처음 만나 서로에 대해 간단한 정보를 주고 받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건이 속도감 있게 전개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젠장', '육실하게는 춤네'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에서 인물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으나,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는 확인할 수 없다.
- ④ 지역적인 특성을 가진 소재나, 토속적인 분위기는 확인할 수 없다.

02 ③

정답 풀이

정씨는 고향을 떠나 뜨내기 노동자 생활을 한 지 십년 만에 고향에 찾아 가는 중이다. 자신의 의지로 고향을 찾아가는 정씨의 태도에 체념의 심정이 들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날 길을 떠나는 정씨와 영달의 모습에서, 이들의 여정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 암시된다고 볼 수 있다.
- ② '그는 집으로 가는 중이었고, 영달이는 또 다른 곳으로 달아나는 길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를 참고했을 때 무언가로부터 달아나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영달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궁금해 할 수 있다.
- ④, ⑤ 고향을 떠난 지 십 년이 넘어 이제는 가 보았자 '아는 이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정씨가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떠나온 길을 따라 가며 자신의 진정한 모습, 삶에서 소중했던 것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03 ①

정답 풀이

(가)에는 행선지를 정하지 못한 영달이 고향인 삼포로 떠나는 정씨 뒤에 홀로 남겨져 있다가 정씨를 따라 가려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이때 영달은 양자 택일의 갈등을 겪고 있지 않으며, 긴장감 또한 느끼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배경 음악을 넣어 양자 택일의 갈등을 나타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② 고향인 삼포를 향해 '둑 너머로 사라'지는 정씨의 모습과, '뽀족한 생각' 없이 뒤에 홀로 남아 떠나는 정씨는 바라보는 영달의 시선을 교차시켜 영달의 외로운 내면을 표현할 수 있다.
- ③, ④ '둑 너머로 사라'지는 정씨의 뒷모습을 보며 뒤에 홀로 남은 영달의 외로움을 영달의 표정 연기와, 카메라를 인물로부터 멀리 촬영하는 연출 방식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 ⑤ '질척이는 독길'을 배경으로, '둑 너머로 사라'지는 정씨가 뒷모습을 보이며 조금씩 사라지는 모습을 통해 안타까움과 외로움을 느끼는 영달의 내면을 암시할 수 있다.

04 ④

정답 풀이

영달은 같이 가자는 자신의 말에 대답이 없는 정씨의 뒤를 따라가며 말을 걸고 있을 뿐, 정씨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젠장, 이런 겨울은 처음이오.”에서 ‘젠장’은 엄동설한에 갈 데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조 섞인 투덜거림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영달은 ‘삼포’로 간다는 정씨에게 ‘거긴 벽지나 다름 없’다며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말한다. 뜨내기 노동자인 영달에게 갈 곳은 생계를 위한 일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이므로 일거리가 없는 ‘삼포’는 벽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의 혜택이 적은 곳)일 뿐이다. 따라서 ㉠은 생계 방안을 마련할 공리를 하는 영달의 모습을 보여준다.
- ② 고향인 삼포로 찾아 가는 정씨가 ‘벌써 저 들판 끝을 바라보고 있’는 것에는 고향을 향한 정씨의 심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일자리를 찾아 가자는 정씨의 물음에 영달이 ㉡처럼 대답한 것에는 일정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노동자의 삶이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영달이 자신에게 ‘기술’이 있기 때문에 ‘별 걱정 없’다고 말한 것에는 정씨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존심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05 ④

정답 풀이

‘삼포가 개발로 옛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정씨가 ‘삼포를 찾아’가 옛 모습을 잃은 삼포를 본다면, 고향의 변화된 현실을 마주했을 때 기대감이 절망으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고향의 변화된 현실을 보고서도 그곳에 남는(ㄹ) 결말에 이르는 것에는, 변화된 현실에 적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고향에 가지 못하는 실향민의 아픔을 그려낼 수 있다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고향으로 향한 정씨가 ‘삼포가 개발로 옛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삼포행을 포기(ㄱ)하는 결말에 이르면, 옛 모습을 잃어버린 고향을 의미가 없다고 여겨 귀향을 포기한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 옛 모습 그대로의 고향을 마음에 간직하려는 정씨의 애뜻한 심정을 잘 그려낼 수 있다.
- ② 고향으로 향한 정씨가 ‘삼포가 개발로 옛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어도, ‘삼포를 찾아’가서 ‘삼포에 남’는(ㄴ) 결말에 이르면, 고향이 변했어도 귀향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 옛 모습이 사라진 고향에서 뜨내기 노동자의 삶을 벗어나 새 삶을 살고자 하는 결말을 통해 개발로 옛 모습을 잃은 고향의 현실에 순응하는 자세를 그려낼 수 있다.
- ③ 고향으로 향한 정씨가 ‘삼포가 개발로 옛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어도, ‘삼포를 찾아’갔지만 ‘삼포를 떠’나는(ㄷ) 결말에 이르면, 고향에 미련을 갖고 찾아갔지만 변해 버린 모습에 절망하는 심정을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 옛 모습이 사라진 고향을 다시 떠나는 결말을 통해 근대화로 인한 고향 상실감을 잘 그려낼 수 있다.
- ⑤ ‘삼포가 개발로 옛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정씨가 ‘삼포를 찾아’가 옛 모습을 잃은 삼포를 보고서 ‘삼포를 떠’나는(ㄹ) 결말에 이르면,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희망에 부풀었던 정씨가 변화된 고향을 보고 절망하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 절망 속에서 삼포를 떠나 또다시 유랑하는 모습을 통해 뿌리 뽑힌 자의 아픔을 잘 그려낼 수 있다.

[06~09] 1403학평A
황석영, 「삼포 가는 길」

06 ①

정답 풀이

㉓는 영달의 모습을 묘사하여 영달이 백화와 함께 가는 것을 망설이는 심리를 독자가 추측할 수 있게 하며, ㉔는 백화의 모습을 묘사하여 백화가 헤어져서 혼자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심리를 독자가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오답 풀이

- ② ㉓와 ㉔는 영달과 백화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으로 요약적 제시라고 할 수 없다.
- ③ 3인칭 서술자가 서술하는 것은 맞지만 ㉓와 ㉔는 영달과 백화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으로 인물의 성격을 직접 서술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㉓와 ㉔는 영달과 백화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으로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⑤ ㉓와 ㉔는 영달과 백화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으로 배경 묘사가 드러나지 않는다.

07 ①

정답 풀이

㉒는 정씨가 영달에게 하는 말로, 백화를 '좋은 여자' 같다고 하며 같이 따라가면 '뜨내기' 신세를 청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㉒에 이어 <보기>는 영달이 백화를 따라가면 또한 일자리도 소개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므로, 빈칸에는 '둘 한 개를 던져 새 두 마리를 잡는다'는 뜻으로, 동시에 두 가지 이득을 봄을 이르는 말인 '일석이조'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② '다다익선'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음.'의 의미로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③ '전화위복'은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의 의미로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④ '이심전심'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의 의미로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⑤ '금의환향'은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출세를 하여 고향에 돌아가거나 돌아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08 ③

정답 풀이

감천 '읍내'는 세 사람이 계속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행선지를 물으며 헤어질 준비를 하는 곳이다. 따라서 감천 '읍내'를 중심부에서 밀려난 세 사람을 포용하는 공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추위와 허기 속에서도 산골 마을을 지나는 세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며 고달픈 떠돌이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떼가'는 추위와 허기에 지친 세 사람에게 일시적인 휴식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 ④ 백화가 자신의 떡 반절을 영달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은 영달과 백화 사이의 유대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⑤ '역'에서 백화는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영달과 정씨는 삼포로 떠나면서 세 인물의 동행이 끝나게 된다.

09 ②

정답 풀이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는 영달이 갈 곳 없는 떠돌이 신세이며 아직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에서 영달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은 백화가 영달을 칭찬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통해 백화가 영달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정씨는 영달이 떠돌이 처지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서 자신의 고향에 함께 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 ④ ㉠에서 영달이 표와 먹을 것을 산 것은 백화에게 따뜻한 인정을 베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에서 백화가 알려주지 않던 자신의 본명을 이야기한 것은 정씨와 영달에 대한 신뢰와 고마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